

[사회]

2008 아름다운 실천, 그 이후

(3) 동남아에 민주주의의 심고 온 국제 인턴 대학생들



지난 17일 광주시 서구 상무동 5·18 기념공원에서 국제인턴 대학생 5명이 파견 동남아 국가의 민주주의 실태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인화, 김요안, 류재훈, 김하나, 양초희씨. /위략기자 jrwi@

자율형 사립고 30곳 2010년 개교

광주·전남 학교 재원 영세 교육 격차만 더 커질 수도

전국에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오는 2010년 3월 문을 열 예정이지만 광주와 전남은 영세한 재원으로 1년에 수 억원씩 부담할 법이나 기업체가 많지 않아 자칫 교육격차만 더 커질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내년 하반기 있을 입시 전형에서는 지필고사나 급지되고 광역 시·도 단위로 추천서 또는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 계획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란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에서 학교가 광범위한 자율성을 갖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를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큰 폭의 자율성이 부여되므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사전 조사에서 3~4군데 학교가 관심을 표명했지만 현재 120여만원은 수업료의 3배인 3백60여만원의 비싼 수업료와 남입금이나 전입금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구체적 모델을 보고 결정한다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현재 자립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

지만 워낙 영세학교가 많아 희망학교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사전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 지침이 나오면 지침을 근거로 홍보를 통해 유도하겠지만 도 단위는 재원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는 도시 학교나 대기업 법인이 있는 곳에 적합한 시스템이다"고 말했다.

입법에 고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권한은 시·도 교육감이 갖되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를 지정하기 전에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 거쳐야 한다.

학생선발 방식은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교장이,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추천 또는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이 전형 요소로 활용된다.

과열 입시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방식의 구술 면접은 금지된다. 학생 모집은 전기에 일반계 고교에 앞서 이뤄지고 광역 시·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

교육부는 내년 3~5월 중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형 사립고 심의·지정 절차를 진행해 총 30곳을 지정할 뒤 2010년 30곳, 2011년 40곳을 추가 지정해 총 10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0분 해질 17시 30분 달출 09시 27분 달질 19시 58분

한낮에도 춥다. 추위!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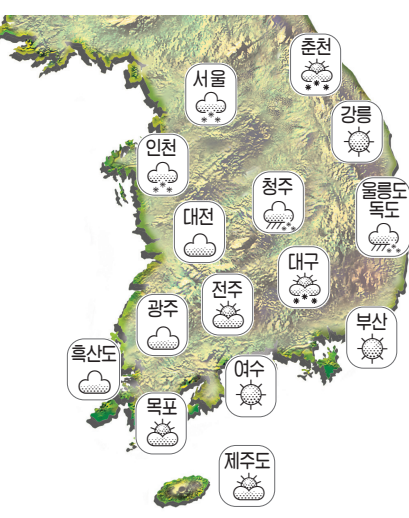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Location and Temperature. Locations include 광주, 목포, 여수, 완도, 구례, 해남, 장흥, 순천, 영광, 진도, 전주, 남원, 옥산도. Temperatures range from 1/4C to -2/3C.

Table with 5 columns: Sea, Direction, Tide, Wind, and Clouds. Rows include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and 바다. Tide ranges from 2.0~4.0m to 1.5~3.0m.

Table with 6 columns: Day, Weather, High/Low, and Clouds. Days range from 31(수) to 5(일). Weather icons and cloud percentages are provided.

광주정신 널리 알려 부듯

"이전 우리가 피땀 흘려 가꿔온 민주주의의 모델을 인권 후진국에 들려줘야 할 때 아닌가요."

1980년 5·18 민주항쟁의 대동정신과 한국의 선진 민주주의를 동남아시아에 전파하고 돌아온 전도사들이 있다. 바로 5·18기념재단이 민주·인권·평화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매년 선발하고 있는 국제인턴 파견대학생들이다.

국제인턴은 5·18 기념재단에서 한국현대사 5·18 민주항쟁 등을 교육받은 뒤 동남아시아 등에 파견돼 선진 민주주의를 알리고 원주민의 인권보호 및 한인 커뮤니티 회합활동가들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동남아 일대 국가와 미국에 파견됐던 제 7기 국제인턴 대학생들이 지난 17일 광주시 서구 상무동 5·18 기념재단에서 만났다.

이날 모임에는 7기 인턴중 5명이 참석했다. 류재훈(27·조선대 무역학과 4년)·양초희(여·23·전남대 영문과 3년)·김요안(26·전남대 영어교육과 4년)·양인화(여·23·영선대 한약재산업학과 3년)·김하나(여·26·전남대 수의학과 본과 3년) 씨 등 5명. 국제인턴 7기 학

피땀 흘려 가꿔 온 민주주의 모델 개도국에 들려줘야

생들은 총 10명이었다. 1년동안 고달픈 타국 생활을 했지만 이들의 얼굴은 한없이 맑았다. 비록 작은 힘이지만 민주주의의 후진국에 5·18의 대동정신을 심고,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깨치고 있다는 보람 때문이다.

또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이들과 나란히 국민들이 민주·인권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데 대한 뿌듯함도 담겨있었다. 미국에 파견됐던 학생들은 미국내 국제결혼 한인여성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했었다.

이들이 동남아에 파견됐던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는 반정부·민주화 시위가 잇따랐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군부 쿠데타와 독재가 이어졌었다.

태국의 인권네트워크인 단체인 '포럼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돌아온 양초희씨는 "태국에서 4개월 가량 지내면서 인접국가인 미얀마 유혈

사태로 인한 희생자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승려와 시민들을 독재 군정이 무력 진압하는 유행 사태가 벌어져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의 5·18 민주항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동남아 국가 국민들은 한국 민주화의 불길을 당긴 광주 5·18 민주항쟁을 한없이 부러워하고 있다"며 "5·18은 광주라는 도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많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국내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부당한 대우 등 여전히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 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했던 김요안씨는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민을 잘알아 보는 경향이 있는데, 민주주의를 이룬 국민으로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의 순수한 의도마저 오해받을 때가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특목고 복수지원 못한다

2010학년도 입시부터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국어고는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해 학생을 선발해야 하고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1개 학교에만 지원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3월 자율형 사립고 개교를 계기로 고교 입시가 과열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목고 등 고교 입시 개선행을 마련,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또 외국어고는 그동안 전국 단위 선발이 가능했으나 2010학년도부터는 광역 시·도 단위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특목고 입시전형을 학교별로 확정하면 해당 시·도 교육감이 취합,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사전에 특목고 전형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매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특목고 입시 전형에 대한 기본 계획은 시·도 교육청별로 내년 3월31일 전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연필뉴스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내년 10월 준공

신안군 흑산면 가거초에 종합해양과학기지가 내년 10월 준공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59억원(총공사비 100억원)을 투입, 내년 10월 가거초 해양과학기지를 준공해 2010년 1월에 가동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도 높인 26m가 드러나게 된다. 무게는 523톤, 면적은 330㎡(100평)로 이어도 기지의 1/4 정도 규모다. 가거초 기지에는 기상 및 해양관련 27종의 관측 장비가 설치돼 기상관측과 해양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관측 자료는 무궁화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련 연구원으로 전송되게 된다. 국토부는 "전송된 관측 자료는 기상 및 해양예보의 적중률을 높이는 데 활용되며, 해상에서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많은 분야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강정보대 등록금 동결 목포해대 총장선거 돌입

광주 서강정보대학이 광주·전남지역 전문대 중에서는 처음으로 등록금 동결 방침을 결정했다. 서강정보대학은 29일 "전 세계적 경제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고자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며 "부족한 재정은 대학운영의 효율화와 예산절감 등을 통해 충당하되, 취업 관련 예산과 장학금에 대한 투자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목포해양대 제5대 총장선거가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했다. 목포해양대 총장추천위원회는 "지난 25~26일 후보자 신청인 등 목록을 한 결과 윤영모(해상운송시스템학부), 최주열(기관시스템공학부), 조화현(해양전자·통신공학부), 안영직(전 건설교통부 장관)씨 등 5명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목포=이상규기자 ish@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and various service details.

굿모닝365 Goodmorning365. Advertisement for a health supplement with product images and benefits.